

분류	주일예배 설교- 주일1부
제목	시내산에 오른 이스라엘 민족
성경	출애굽기 19:1-6
일시	2009년 6월 21일
장소	임마누엘 서울 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1-6)

- 0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 0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 0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 0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 0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 0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 요약 자료 ♣

☞ 서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기 바란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지 3개월 되었는데 시내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70%가 산이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중요한 모임을 산에서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1. 개인이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산을 가지고, 산에 오르라.

-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생각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기도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 산이 필요하다.
- (1)호렙산- 모세를 부르셔서 80년의 한을 말씀하셨다. 영적 싸움에 지친 엘리야를 부르셔서 힘을 주시며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모세가 처음으로 은혜받고 결단내린 산이다.
- (2)진짜로 동기없이 복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루에 한번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RUTC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있다.
 ▶모세가 부름받은 호렙산,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사명이 변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라. 이 말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 기도가 필요 하다. 네 자손들에게 말해주라.
- (3)예수님께서도 산에 자주 가시고, 혼자 가서 기도하셨다.
 ▶아브라함(창13:18), 예수님(막1:35)

2. 내가 산에서 받을 은혜- 나의 정체성을 찾으라.

- (1)3절-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고하라(내가 누구냐?)
- (2)4절-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한 것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보라.
- (3)5-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전세계가 하나님께 속해있다. 너희가 내 말,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의 산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내야 한다. 이 산에서 힘을 얻으라.

3. 내가 붙잡을 것- 증거를 붙잡으라.

- (1)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라.
 ▶류 목사님이 어려울 때- 렘33:3,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마가 다락방에서 붙잡은 증거, 행2장의 응답을 붙잡으라(롬15:4)
- (2)증거를 붙잡으라
 ▶진도하러 갈때도, 문제가 올때도 증거를 붙잡으라.
 애굽에서 널 인도해낸 증거, 네가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증거, 그것을 붙잡으라. 80세때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그 증거를 붙잡으라. 바로왕을 꺾고 애굽에서 나온 그 증거를 붙잡으라. 그

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것을 네 자손에게 전하라.

▶여러분이 오늘 아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다고 할때 영적으로 는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성령역사, 주의 천사, 흑암결박)

4. 결론

- (1)이 시내산에서 머물지 말고 갈보리 산으로 가라.
- (2)바울은 산에만 있었던게 아니고 산에서 회당으로...
- (3)우리는 영적으로 회당만 있는게 아니고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류 목사님이 좋아하는 단어- 유관무언(有觀無言), 다해산(多海山), 우리 다락방이 많은 산과 바다를 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계복음화 단어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인생 결단을 내라.
 왜 산에 올라가는가? 인생을 결정하라는 말이다.
 여러분이 딱 한번밖에 안사는 인생인데 결정해라. 한번밖에 안사는 인생인데 세계복음화를 놓고 결정해라. 딱 한번밖에 안사는 인생인데 학업도, 사업도 결정해라. 전세계 램넛트 일어날때까지 인생 결정해라. 인생 결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했다면 그때부터 역사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작은 하루이지만 큰 날이 되기 바란다.
 오늘 아주 구체적인 축복을 받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The end)

♣ 녹취 자료 ♣

서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기 바란다.
어떤 청년이 부두에서 일을 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이었다. 지식이 없어도 되는 일이다. 그 일이 힘든 일이다. 아주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나면 빨리 돌아가버린다. 대부분 사람들이 빨리 가서 술도 먹고 피곤을 잊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 끝나고 난 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매일 같이 바닷가에서 한 시간씩 생각했다. 매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생각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그 사람이 나중에 세계 선박왕 오나시스가 되었다. 원래 부두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출애굽 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시내산으로 올라가라. 그 내용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가게 하였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산으로 가라고 하는가.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다. 이스라엘에 산이 많아 산에 가는 경우도 많다. 엘리야, 엘리사, 갈멜산, 호렘산.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다윗이 피했던 하비다산, 산 얘기가 많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산에 데려가서 가르쳤다.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해서 팔복산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보고 감람산에 모이라고 했다.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산에 오르라고 한 얘기가 많다.
말하자면 중요한 모임을 산에서 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 가는 그 바쁜 중에 하나님이 산에 오르라고 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은 대로 한다면 분명히 응답 받는다.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가? 단순한 산이 아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 우리가 다 등산을 하자는 말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산으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등산하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내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특별한 소풍 가라는 게 아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서 생각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장소다.

1. 개인이 기도 응답받는 산을 가지고, 산에 오르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에게 산이 필요하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만 진짜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산은 재미있는 산이다.

(1) 호렘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실 때 80년의 한을 얘기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바로왕을 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그 산이 호렘산이다. 그런데 호렘산이 바로 시내산이다. 반도가 워낙 커서 그 중에 한 산이 호렘산이고 시내산과 같은 곳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신 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간 것이다. 그게 시내산이다. 즉 호렘산이다.
▶성경 읽어보면 중요한 역사가 나온다. 너무 너무 어려운 영적 싸움하다가 지킨 엘리야. 엘리야가 너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힘을 주며 뭐라고 말했는가. 지금 힘을 내라.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호렘산으로 가라. 그렇게 간 산이 호렘산이다. 호렘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하셨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엘리야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 산이 바로 호렘산이다. 굉장한 의미다.

▶이스라엘 민족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왜 산으로 데려가는가? 새로운 언약을 잡으라는 말이 된다.
왜 하필 시내산인가? 처음 모세가 은혜 받고 결단 내린 장소다. 왜 하필 엘리야, 엘리사 최고 선지자를 호렘산으로 부르셨는가. 이런 말이 된다.

(2) 세가지- 복음, 진도, RUC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진짜로 동기 없이 복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한 번만 진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RUC에 대해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 제가 만난 분은 거의 동기가 있다. 진짜 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진짜 산에 오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분명히 역사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밖에 나가 할 일도 많은데 많은 기도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진짜 생각해보라. 그런데 제가 보통 100명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100명 다 동기가 있다.

▶정말 복음에 의한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 받는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응답 받는 생각을 잘해보셔야 한다. 생각이란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하다. 기도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기도다.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옛날에 전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았냐면 부교역자로 있을 때 너무 어려웠다. 교회 한 번 가봐라. 시험 들 일이 너무 많다. 이게 무슨 교회냐. 내가 교회 가보니까 너무 너무 시험 들고 이상하고 싸우고. 많은 교역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 때 생각했다. 이게 맞느냐? 내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으려고 교회 가서 죽도록 머리 돌리는 게 맞냐는 것이다. 그 때 50만원 받았는데 그거 받으려고 오만 잔머리를 돌려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한 명이라도 구원 받을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에게 사례까지 주며 교역자하라고 한다. 그래서 현장 가기 시작했다. 그게 엄청난 응답인지 몰랐다. 지금 생각하면 맞다. 이만큼 생각이란 게 중요하다.

▶어제도 여러분께 고백했다. 저는 인격이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안 된다. 저는 지금도 길 가다가 바다를 보면 고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차를 타고 비서들과 가다가 강 같은 데를 보면 저기는 봉어가 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목표는 세계복음화이지만 내 비전은 따로 있다. 내 소원이 하나 있다. 한 3일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다. 제 인격이 이렇다. 어떤 사람은 꿈에도 소원이 통일인데 저는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2일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다. 전도를 늘 생각한다는 건 세계 불가능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찌된 일인지 하루에 한 번은 빠짐없이 전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뭉뚱이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가서 성공하려고 뭉뚱이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서울 가서 성공하려고 한다. 저는 그런 거 달라고도 안 했는데 서울 가니까 좋은 선교센터도 있다. 달라고도 안했다. 전도만 생각했다. 엄청 능력 있는 분들이 서울 와서 그런 거 구입하려고 하는데 평생 해도 안 된다.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돈 없었다. 시작하는데 중도금, 계약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우리 중직자들이 저에게 얘기했다. 제 때 돈 못 내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제가 말했다. 돈 안 생기면 안 하면 된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계약금 날아간다는데 날아가면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사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로 다 연결되었다.

▶여러분은 찬양을 그냥 하시지만 이 찬양이 전 세계로 나간다. 유럽, 미국, 음악에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찬양 듣고 은혜 받는다. 여러분이 시대적인 전도자들이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무대를 향해 노력하겠는가?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본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번에 임마누엘서울교회 봐라. 우리는 전도운동만 계속 할 것이다. 좋은 예배당 주셔서 지불이 끝났다. 장로님들만 죽도록 고생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걱정할 필요 없다. 전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데려가라.

▶저는 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기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 전국, 세계 목사님들 걱정할 필요 없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잘 아신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 대부분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한다. 여러분, 진짜 그거 없이 모세가 복을 받았던 호렘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세야, 너가 처음 받은 거 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가 지금 받았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 말이다. 그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6월 끝에 보니까 내 자손들에게 말해줘라. 이 산에서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인물이 나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것을 생각할 산이 필요하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 바란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80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모세를 40대쯤 부르시면 좋은데 80세 때 불렀다. 40세의 차이가 얼마인가. 80이면 인생을 거의 다 살았을 때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3) 막1:35, 예수님께서도 산에 자주 올라가시고 혼자 가셔도 기도하셨다.

▶옛날에 인생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때 산에 었드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창13:18.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수풀에 단을 쌓았다. 아니, 그것밖에 안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진짜 동기 없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저는 늘 생각한다. 동기를 늘 내버린다. 많은 멤버들이 알았는지 몰라도 저는 늘 기도하고 있다. 저는 부산임마누엘교회, 서울임마누엘교회 크게 부흥 시킬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많은 중직자 일어나서 복음만 전하면 크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밤에도 기도하셨다.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교역자들은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장을 해서 새벽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농담한다. 길선주 목사 때문에 목사는 새벽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말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농담한다고 새벽기도를 어떤 놈이 내놨냐고 한다.

막1:35 예수님이 내셨다. 예수님도 새벽미명에 기도하셨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힘들지만 새벽미명에 이것을 알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저도 밖에 나가기 전에 새벽기도를 1부, 2부로 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새벽기도 마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른다.

2. 내가 산에서 받을 은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오늘 산에 올라갔더니 두 번째 깨달아야 할 말씀이 나왔다.

(1)3절,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고하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산에서 받아야 할 은혜가 뭐냐? 모세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고하라 왜 야곱, 이스라엘이 나오는가?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고하라. 무엇을 말하는가. 근본을 묻는 것이다. 너가 누군지 알겠느냐.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고하라. 그 은혜를 받아라. 그게 3절이다.

(2)4절에는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한 것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을 생각하라.

▶산에서 생각해야 할 내용이다.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했는지를 생각해보라.

(3)5, 6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고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마디로 뭐냐? 정체성이다.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정체성 찾아야 한다. 내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뽑아냈다. 그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제일 큰 문제가 온다. 우리가 기도 중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인데 내 정체성을 찾아내야 한다.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하라. 될 두려워할 게 있는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로, 내 소유로 만들겠다.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정체성,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산이 있어야 한다. 그 산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언약을 다 주셨는데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산에서 힘을 얻으라. 그게 3-6절까지다.

3. 내가 붙잡을 것- 증거를 붙잡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라는 이유가 뭐냐? 기도응답 받기 위해 첫째, 산에 오르라. 이 말은 등산가라는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두 번째, 내 정체성을 찾으라. 그리고 세 번째, 증거를 붙잡으리라.

(1)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언약 붙잡고 증거를 붙잡아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때 반드시 증거를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도 계약을 한 뒤부터 일이 벌어진다. 건축허가 나야 그 때부터 건축을 한다.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저는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이 성경구절을 붙잡았다. 렘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때는 성경을 잘 몰라서 이것밖에 기억 안 나더라. 이걸 쉽게 기억나더라. 33이니까 렘33:3. 이 말이 농담이 아니다. 진짜 극한 상황이 되면 성경도 안 읽어진 다. 성경 공부하는 건 털 급해서 그렇지 진짜 급하면 안 된다. 정말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나니까 제대로 성경공부가 되는가. 어려움 당하면 다 필요 없다. 심지어 신학공부 했다. 아무 생각 안 난다. 인생에 어려움 당하니까 신학공부를 10년 넘게 했어도 생각 안 난다. 다 허구다. 그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다. 렘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급한 상황에서 붙잡는 말씀이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배할 때도 증거를 붙잡아야 한다. 마가다라방에서 붙잡은 언약, 증거를 붙잡아야 한다. 행2장에 주신 응답을 내게 달라고. 증거를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난다.

▶롬15:4.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역사한다. 그래서 집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 행1:8까지 1년 동안

설교해도 다르게 역사한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2)진도하러 갈 때도 증거를 붙잡는다. 많은 핍박이 일어날 때도 증거를 붙잡았다. 우리 교회 주위 교회가 짜고 저를 어렵게 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크게 다가오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속으로 욕했다. 짜식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다 공부 못했다. 제가 안다. 같이 공부했다. 학교 다닐 때 늘 이상한 것 했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것이다. 속으로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니깐 이만 갈리지 응답이 안 된다. 증거를 잡았다.

▶지금까지 두 가지 증거를 잡았다. 지금까지 진짜 진도운동하면 핍박받지 않았다. 올바르게 계속 나가면 언제든지 풀리지 않았나? 저것은 핍박이 아니라 점검 단계가 아니냐? 한국 사람들은 욕을 해서 점검한다. 뭐든지 정상적인 생각과 머리로 과학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해서 점검한다. 악을 써서 점검하고... 이것은 점검 단계다. 바르게 계속 복음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예배드릴 때 성경 다 못 외운다. 증거를 붙잡아라. 물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큰 재산이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외우는가?

훈련 받는 걸 다 못 외운다. 가장 중요한 게 증거를 붙잡아라. 왜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가? 증거를 잡으라는 것이다.

무슨 증거?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증거. 그리고 구원 받은 어마어마한 증거. 나는 나이가 많아서? 80세 때 호렙산에서 부름 받은 증거를 붙잡아라. 바로왕이 내 말을 듣겠는가? 바로왕을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 증거를 붙잡아라. 그리고 이 언약 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네 자손에게 말하라. 여러분, 지금 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증거를 붙잡아라. 어떤 증거? 문제가 오면 이것은 훗날에 간증이다. 맞다. 증거를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라. 시내산이 바로 호렙산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응답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하면 된다. 여러분 개인의 중요한 산을 가져라.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해라. 그리고 예배드릴 때나 어떤 순간이든 증거를 붙잡아라. 이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

▶지금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이지만 이 시간에 영적으로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믿으시기 바란다. 우주 속에도 굉장한 원리가 있다. 우주 속에 전혀 진도 없이 전화하고 있다. 다 뭔가를 타고 과학적으로 있는 것이다. 요즘 같은 경우는 TV도 그냥 보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컴퓨터도 그냥 하는 게 많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우주 가운데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 여러분이 오늘 아시고 언약 잡고 기도 하신다면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특히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 성령께서 현장에 역사하신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산업에, 자녀들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보통 축복인가?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하늘에서 바로 보내사 역사하신다. 예배드릴 때 잘하시야 한다.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그 일이 벌어지니까 흑암 세력이 썩인다.

저는 제일 걱정인 사람이 예배시간에 와서 조는 사람이다. 돈 빌려 주지 마라. 꼭 받는다. 예배시간에 자는 건 일부터 자는 게 아니다. 오늘 예배 때 자겠다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반대다. 오늘 안 좋아야지. 그런데 준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잔다는 건 이미 영, 육간에 힘이 다 빠졌다 는 것이다. 빨리 정신 차리고 조절해야 한다. 밤에 TV를 보지 말든지, 무슨 수를 내야 한다. 뭔가 모르고 삶도 질서가 안 맞다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산에 오르는 시간이다. 산에 갔더니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하라. 짧은 시간인데 증거 잡아라. 오늘 여러분이 호렙산에 올라라.

4. 결론

▶결론을 내겠다. 더 중요한 결론 몇 개 있다.

(1)시내산에서 머물지 말고 갈보리산으로 가라.

▶시내산은 율법을 주기 위함이다. 구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해봐야겠지만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갈보리산으로 가야 한다.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권사님이 기도원을 하나 만들었다.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권사님이 담임목사님에게 기도원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담임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다. 이름이 시내산 기도원이다. 제가 따라갔다. 부교역자 위치가 있다. 뭐라고 안 했다. 갈보리산이라고 짓지, 시내산인가. 시내산에 있으면 천둥, 번개 다 맞는데. 갈보리산으로 가야 하는데.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끝났는데...

시내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갈보리산은 모든 것을 끝내는 산이다. 그래도 그렇지, 부목사인데 담임목사님보고 시내산 하지 말고 갈보리산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권사님이 제게 물더라. 참 이름을 참 잘 지었죠? 라고 물었다. 진짜 맨날 천

둥, 번개 친다. 싸움 붙어서 제가 모시던 목사님 보고 고발하고 그랬다. 저는 목사하고 교인하고 고발하는 거 보니까 참 우습더라. 그러니 완전히 망한 것이다. 우리는 갈보리산으로 가야 한다.

(2) 바울은 산에서 회당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회당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 우리 비서들이 이런 질문을 제게 하더라. 특히 누가 결혼을 한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할 때 붓글씨를 써서 선물한다. 물론 요청할 경우 그렇다. 비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 목사님, 이렇게 쓸 때는 옆에 뭐가 있어야 합니다. 알지만 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호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 끝에 아주 좋아하는 글을 쓰고 빨간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모양새가 난다.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호라는 것은 큰 인물이 늙었을 때 받는 거지, 늙지도 않은 내게 호가 필요하나. 내 속으로 그런 말을 했다. 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위 사람들이 지어주는 것이다. 그런 경우가 제일 올바른 경우다. 누가 안 지어주니까 자기가 짓는 것이다.

▶ 그런데 저는 좋아하는 글자는 있다. 제가 혼자서 낙서를 하면 쓰는 글자가 있다. 한자로 쓰는 게 있다. 그 글자가 두 개 있다. 한 개는 유관무언(有觀無言), 유관은 본다는 말이다. 무언은 말을 안 하는 것이다. 저는 정시기도를 늘 하다 보면 한국교회, 여러분 미래를 많이 본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한다. 또 하나 낙서하면서 쓰는 글이 있다. 글자 세 개를 쓰는 게 있다. 다해산(多海山). 한자로. 많은 다(多)를 쓴다. 다락방 첫 자다. 밑에는 바다 해(海)를 쓴다. 제일 밑에는 산(山)자를 붙인다. 다락방이 많은 바다와 산을 넘게 될 것이다. 그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다. 저는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인생결단을 내라. 왜 산에 오르라고 하는가? 인생을 결정해라. 여러분, 한 번 밖에 안사는 생인데 결정을 해라. 한번밖에 안사는 인생인데 세계복음화를 결정해라. 세계복음화를 놓고 학업도, 사업도 결정해라.

여러분, 램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움직일 때까지 세계복음화를 놓고 인생을 결정해라. 그 말씀이다. 산에 오르라. 인생 결정해라.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결정할 때 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인생 결정을 해야 틀린 것을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 인생을 결정하면 10년은 짧아진다. 우리 램넌트들이 인생결정을 내리면 틀린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굉장히 중요하다. 형제 한 명이 휠체어를 타고 앞에 앉아가게 된다.

이러면 최선을 놓고 인생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 여러분, 삼머섯 모음이라는 사람이 있다. 어릴 때 다리를 잃었다. 삼촌에게 물었다. 삼촌, 기도하면 뭐든지 되냐고.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되느냐. 된다.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오른쪽 다리가 없는데 기도하면 나겠나?

얼마나 곤란한 질문인가? 다리가 없고 의족을 끼고 있는데 나겠나. 그런데 삼촌이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정말이나. 정말이다. 애가 방에 들어갔다. 밥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기도했다. 하나님, 내 다리가 나아서 마음대로 걸어 다니게 기도하고, 3일을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나는가를 보려고 하다가 확인할 필요 없다. 의심하는 게 아닌가.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고 했다. 이래서 문 열고 바로 뛰었다. 역시 3일을 굶고 기도했지만 다리는 나지 않고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나? 왜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내 다리는 안 나는가. 그 때 삼촌이 와서 중요한 얘기를 했다. 너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두 개 있는 사람이 못 가는 곳을 갈 수 있다. 너는 뛰지 못한다. 그러나 잘 뛰는 사람보다 더 많이 뛸 수 있다. 하나님은 그 힘을 내게 주실 수 있다. 전 세계를 누비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생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리면 그 때부터 역사는 시작된다.

▶ 오늘 작은 하루지만 큰 축복의 날이 되기 바라다. 아주 구체적인 축복 받는 귀중한 날이 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한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산에 오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붙잡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시대산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www.darak.net ② http://data.darak.net	
총국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1-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